

책 매개로 지역사회가 하나 된다

역사 전통 자랑하는 미국의 책축제

글_허선

전체적으로 미국 출판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책관련 부분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책축제이다. 미국의 책축제는 주로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열리는데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지역축제는 물론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책축제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한 달, 적게는 하루로 열리는데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와 교육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독자들이 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로 커가고 있다.

✦ 지역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책행사

대부분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책축제는 지역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통한 홍보와 지역기업 또는 도서관, 학교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언론매체나 기업, 도서관, 학교가 앞장서서 글을 통한 창작의 소중함과 독서의 중요함을 알린다는 면과 지역사회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델라웨어 북페어 & 작가의 날 Delaware Book Fair and Authors Day'은 지역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기리는 행사로서 자리잡고 있다. 델라웨어 출신 작가들의 책 마케팅은 물론 홍보,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열리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즈 책축제 St. Petersburg Times Festival of Reading'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책 행사이다. 세인트 피터스버그는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을 비롯해 많은 아트갤러리가 위치하고 있어 책 전시 및 판매는 물론 공예와 미술, 음악 등 예술과 관계된 전시나 판매도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라티노 책과 가족 축제 The Latino Book & Festivals'는 라티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책행사다. 올해에는 휴스

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3개 지역에서 열렸는데 많은 라티노 대표 작가들이 참여해 책사인회를 가졌고, 라티노 음악, 춤, 무술과 춤이 함께 어울어진 카포에이라 시범 등이 선보여 라티노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흑인 어린이 책축제 African American Children's Book Festival'는 다른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과 거리가 먼 흑인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고 지역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책을 가까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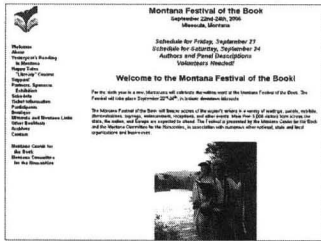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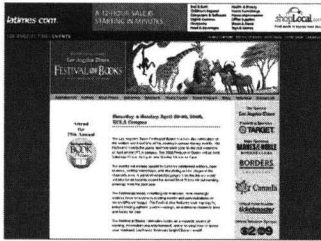
'몬타나 책 페스티벌 Montana Festival of the Book'은 북부 록키 문학을 축하하는 행사이다. 몬타나 도서 시상식을 비롯하여 원북 몬타나 셀렉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권장도서 선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가 가득한 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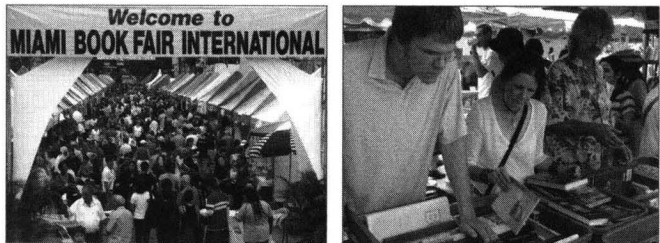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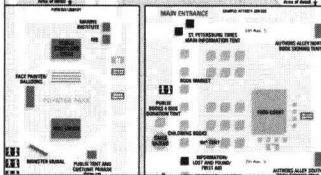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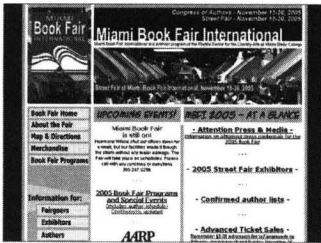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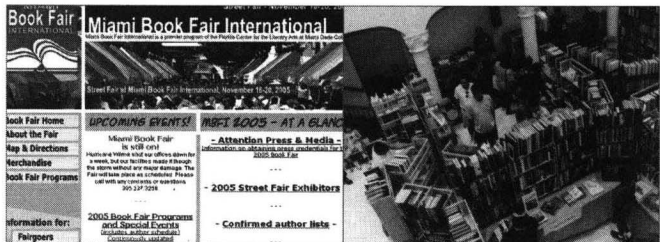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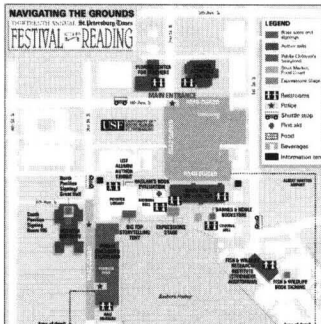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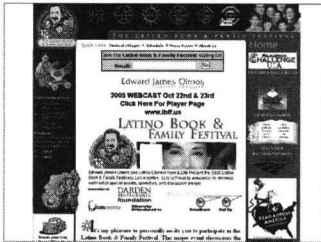
책축제의 단골메뉴로는 먼저,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이 있다. 여기에는 작가들이 직접 나와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글쓰기를 통해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해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토론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 책축제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책 토론회이다. 작가가 직접 나와 자신들이 쓴 책의 일부분을 읽어주고 그 책을 쓰게 된 경위라든가 배경을 설명해준다. 다음에 이어지는 독자들의 질문과 작가의 대답은 자연스럽게 작가와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작품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유명작가가 등장하는 책 토론회는 많은 독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패널 토론회는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토론회이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에 관한 토론회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직접 패널로 나와 어떻게 A출판사와 B작가를 연결해줬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고 작가지망생이 있다면 어떻게 출판사들을 공략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이 있는 패널 토론회는 그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미국 책축제 홈페이지 주소)
www.latinobookfestival.com
www.latimes.com/extras/festivalofbooks/index.html
www.miamibookfair.com
www.bookfest-mt.org
www.festivalofreading.com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토리 텔링이다. 저자들이 직접 나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린이들은 그동안 품어 왔던 여러 궁금증을 저자를 통해 직접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책들의 주인공들로 꾸며져 있는 무대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부모와 어린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프로그램이다.

책 시상식도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각 축제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나 그 해를 대표하는 작품을 골라 상을 부여한다.

문학기행도 축제와 연관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나 그 지역출신의 작가와 연관된 문학기행으로 작가의 생가나 박물관 방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다시 한 번 문학의 깊은 맛을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마지막을 요리책 데모 프로그램으로 장식, 축제를 찾은 독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요리사이자 저자인 작가가 직접 요리를 시연함으로써 자신의 책 홍보는 물론 많은 사람들과 요리를 나누먹는 시간을 갖는다.

+ 대표적인 책축제

미국의 대표적인 책축제는 이번 해로 10회를 맞이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책축제 LA Times Festival of Books' 와 22회를 맞이한 '마이애미 국제도서전람회 Miami Book Fair International' 그리고 '뉴욕은 책의 나라 New York is Book Country' 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책축제'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문학축제로서 매년 수십만 명의 독자들을 한자리로 불러모으는 전국적인 책축제로 자리잡았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는 언론과 UCLA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의 언론과 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마이애미 국제도서전람회'는 세계 각국의 도서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출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나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행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뉴욕에서 열리는 '뉴욕은 책의 나라'는 출판의 메카 뉴욕에서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까지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취소되어 많은 독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지식의 기반으로서 '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에서도 책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책 읽는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파주어린이책축제, 영월책축제 등 많은 책 관련 축제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네 책축제들도 미국의 여느 축제들처럼 지역의 특성과 인프라를 잘 이용해서 한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성숙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유민**

● 이 글을 쓴 허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 www.galleryjinsun.com 을 운영하고 있다.